

# 2023년 누리과정 포털 놀이를 통한 자녀성장 수기 공모전

제목: 방구석 놀이의 귀재 (feat. 놀이 개발자 집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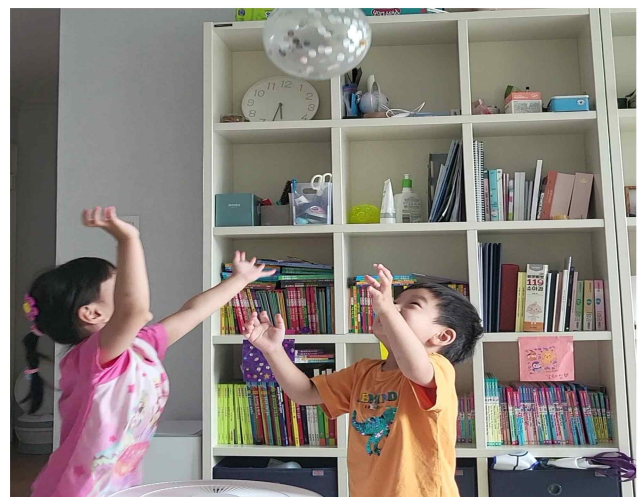
“TV 없이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해요?”

우리 집에는 TV가 없지요. 그리고 우리 집에는 집을 사랑하는 집돌이가 살고 있습니다. 주말 내내 집에만 머물기도 하는데, 그럴 때면 주말 내내 집에서 무엇을 하는지 주변에서 궁금해하고는 합니다. 신혼 때부터 꼭 TV 없이 생활해 왔기 때문에 익숙하지만, 주변에는 낯선 일인 듯합니다.

TV 없이도 주말을 집에서만 보낼 수 있는 우리 집의 특별한 점이라면, 우리 집에는 남매 쌍둥이가 살고 있습니다. 그중 후동이 아들은 놀이를 스스로 찾고, 전개해 나가는 능력이 탁월하지요. 또한, 성별도 성격도 다른 두 아이는 서로에게 놀이 선생님이 되어주고, 놀이 친구가 되어줍니다. 서로 다른 성향과 관심사를 가진 남매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다양한 놀이 아이디어를 낼 수 있기도 합니다.



만 3살이었던 아이들이 하루는 창고 안에 넣어뒀던 풍선과 풍선 펌프를 꺼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스스로 풍선에 바람을 넣어보고 싶다며 도와달라고 했지요. 그리고 나서는 여러 개의 풍선을 포도처럼 엮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2~3개가 연결된 풍선을 흔들고 한참 놀더니, 풍선을 위로 던지고 떨어지는 풍선을 받는 놀이를 시작했습니다. 선선한 날씨였지만 땀이 나도록 거실을 돌아다니며 풍선을 던지고 놀았어요. 한참을 뛰고 난 아이들은 저와 남편에게 풍선 10여 개를 트램펄린 위에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트램펄린 위에 올라가 폴짝폴짝 뛰기 시작했지요.



아이의 점프에 바닥으로 풍선이 튕겨 나갔고, 모든 풍선이 떨어지면 다른 아이 순서라며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겨라. 이겨라”라고 외치며 응원을 하기도 했지요.

아이들이 풍선 하나로 다양한 활동을 스스로 구상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아이의 작은 몸속에는 있는 큰 놀이 세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놀이를 함께하면서 아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TV는 교구교재 같은 역할을 하는 도구인 듯합니다. 가끔 아이들의 조부모님 댁에 방문하여 TV를 보는 날이면, TV를 통해서 놀이 아이디어를 얻어오곤 하지요. 그런 모습을 보면 TV의 필요성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TV 시청으로 쌍둥이 간의 다툼이 생기고, 이를 중재하기 위해 실랑이할 것을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지기 때문에 TV 두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어떤 교육적인 목적과 가치관을 가지고 하는 TV 없는 육아를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 떠난 여행에서도 아이들은 방구석 놀이를 개발해 냈지요. 숙소가 작은 마당이 있는 고즈넉한 한옥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당에는 돌맹이가 많았어요. 뒷마루를 통해 맨발로 마당에 나간 아이들은 돌맹이를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돌맹이를 많이 모으기 위해서 서로 협동하는 모습이 기특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모은 돌맹이 여러 개를 길게 줄 세워서 애벌레를 만들었지요. 그리고 종이컵에 돌맹이를 한가득 담아 보리차와 쥬리를 만들어 간식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돌맹이 사이에서 공벌레를 만났어요. 작은 곤충을 소중하게 만져보고, 손과 발 위에도 올려보았지요. 마당에서 노느라 이곳에서도 아이들은 숙소에 있던 TV 볼 시간이 없었어요.

자연물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즐거움을 주는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집에서는 정형화된 장난감을 두고 종종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곳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이 또한 자연이 주는 풍요로움이 아닐까요. 그리고 돌맹이를 손으로 만져보고, 맨발로 돌맹이 위를 걸으며 돌맹이의 촉감을 느끼며, 자연 일부를 경험했다는 것이 아이들에게 즐거움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집콕 놀이가 가능한 또 다른 이유는 저희 부부의 역할입니다. 엄마인 저의 체력과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물구나무서기와 말타기는 남편이 담당합니다. 그리고 깔끔하고 차분한 제 성격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물놀이와 물감 놀이도 남편 담당이지요. 그리고 제가 생각 못 하는 놀이 아이디어를 내거나, 특유의 유머와 말장난으로 아이들을 즐겁게 해줍니다. 저는 아이들이 요구하는 놀이 방향이 있으면, 성심성의껏 지원해 줍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재료를 꺼내주는 것은 제 담당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재료가 없을 때는 대신할 수 있는 도구나 방법을 제안하여 아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놀이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놀이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때론 이렇게 놀기만 해도 되는 것인지 고민과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만 3세에서 만 4세로 넘어가면서 아이의 또래 친구들은 학습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또래 친구들은 벌써 한글을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아이들은 너무 놀기만 하는 것 아닌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지금 아이가 누릴 수 있는 놀이의 즐거움을 충분히 누리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큼니다. 놀이를 통해서 즐거움, 몰입, 과정 지향적 경험, 무한한 상상력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놀이 경험이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서 커나가는 데 도움이 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주체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